

유리 개인전
《투명한 고리》



결국 끝맺음이 결여된 모양으로, 2025, 캔버스에 유채와 콘테, 181.8x259.1cm

전시제목 : 유리 개인전 《투명한 고리》

전시기간 : 2025년 11월 19일(수) – 2025년 12월 20일(토)

전시장소 : 학교재 본관 (서울 종로구 삼청로 50)
학교재 오룸 (online.hakgojae.com)

출 품 작 : 회화 및 설치 52여 점

○ 담 당 이주연 juyeonlee@hakgojae.com

○ 문 의 02-720-1524~6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51119-20251220_유리, 투명한 고리

1. 전시 개요

학교재는 11월 19일(수)부터 12월 20일(토)까지 유리(b. 1994)의 개인전 《투명한 고리》를 연다. 학교재에서 선보이는 첫 개인전이다. 회화와 오브제 설치를 포함한 약 52여 점의 신작을 통해 작가가 최근 집중해온 사유의 구조와 감각의 결을 응축적으로 드러낸다.

유리는 오랜 기간 '연결성(connectivity)'을 핵심 주제로 삼아 작업 세계를 확장해왔다. 언어와 시각언어, 회화와 매체, 그림과 종이, 내부와 외부, 자아와 타자라는 서로 다른 층위들 사이에서 의미가 생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탐구한다. '경계의 해체'보다 '관계의 구성'에 더욱 가깝다. 작가는 이를 시각적 언어로 구체화하며, 추상적 개념인 '연결성'을 형상화된 사유의 장으로 확장한다.

2. 전시 주제

우리가 감각하고 경험하는 현실의 결은 언제나 말로는 포착되지 않는 지점에서 흐른다. 규정되지 못한 여백의 영역, 그 틈 속에서 작가는 '보이지 않는 문장'을 읽어낸다. 유리는 이 여백을 지엽적이거나 부수적인 부분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언어와 시각언어 사이의 공유될 수 없는 감각에 매혹되어, 언어로는 결코 환원될 수 없는 지점을 작업의 근원으로 삼아왔다.

회화와 아티스트북은 단순한 표현 수단이 아니다. 언어가 해체되고 다시 구성되는 실험의 장이다. 이미지와 개념, 물질과 사유는 그 안에서 서로 얹히고 교차하며, 표현과 의미의 경계는 끊임없이 흔들린다. 작가는 이 흔들림, 즉 언어의 부재가 만들어내는 감각의 여백을 탐구한다. 언어의 결핍 속에서 새로운 언어를 만든다.

회화는 언어의 경계 밖에서 작동하는 또 하나의 언어이다. 그것은 문장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발화되지도 않는다. 유리의 회화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이 얹혀 만들어진 문장이다. 읽을 수 없는 시이며, 해석할 수 없는 소설이다.

작가는 스스로를 '언어와 시각언어', '회화와 매체', '그림과 종이', '내부와 외부', '자아와 타자' 등 서로 다른 층위를 연결하는 존재로 단정한다. 이때 '연결성'은 그의 작업세계를 관통하는 핵심적 개념이다. 물리적 구조의 관계를 넘어, 비가시적이며 정서적인 차원의 연동을 의미한다. 실체가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관계의 증거이며, 존재와 존재를 이어주는 미세한 진동이다.

이번 전시 《투명한 고리》는 크게 두 개의 사유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째, 존재와 부재의 연속성에 대한 탐구다. 장례식장의 초와 생일 케이크 초, 근조 리본과 선물 상자 리본처럼, 서로 상반된 의미를 지닌 사물들이 유사한 형태를 띤다는 사실에서 작가는 중요한 통찰을 얻는다. 동일한 형태가 전혀 다른 감정의 층위를 품을 수 있다는 점, 그 미묘한 전환이 바로 존재와 부재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작가는 이러한 상징적 전환의 순간을 포착해 삶과 죽음, 시작과 끝이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서로를 반사하며 이어지는 순환적 시간임을 드러낸다.

이는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이자 상실과 애도를 사유하는 하나의 윤리적 방법론이다. 그의 회화는 부재를 기록하는 동시에, 사라진 것을 다시 연결하는 위로의 제의로 기능한다.

둘째, 서로 다른 존재 간의 다양한 연결 구조에 대한 탐색이다. 작업에서 '투명한 고리'는 단단한 고리가 아니다. 끊어지지 않은 채 유동적으로 흐르는 관계의 상징이다. 개인의 내면과 외부 세계, 감각과 사유, 개인과 사회를 잇는 다층적 구조로 확장된다.

작가는 교차하고 순환하는 삶의 흔적 속에서 우리를 감싸는 투명한 관계망을 그려낸다. 감각적으로는 인지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 흐름을 '회화'와 '책'이라는 두 매체를 통해 가시화한다. 그의 작업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행위가 아니다. 감지할 수 없는 것을 감각으로 번역하는 실천이다. 회화의 표면은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고 스며드는 장소이며, 그 흔적은 색과 질감의 층위로 남는다.

우리는 '연결'의 원형적 의미를 되짚으며, 모든 관계의 근원은 '부재에서 비롯된 이어짐'에 있다고 말한다. 그의 회화는 언어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 세계의 리듬을 붙잡으며, 그 미세한 떨림 속에서 존재가 서로를 감지하고 이어지는 새로운 질서를 드러낸다. 매 순간 생성되고, 소멸하며, 다시 이어지는 관계의 장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투명한 고리》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관계의 결을 포착하고자 하는 시도이자, 언어 이전의 세계를 감각적으로 탐구하는 결과물이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교차하고 스며드는 하나의 '투명한 고리'로서 조용한 울림으로 우리 곁에 머문다.

3. 작품 소개



잔존하는 것들을 뭉쳐 만든 슬픔

Sorrow Formed from What Remains

2025

투명 레진, 시든 꽃, 종이 드로잉,

외할머니의 목걸이에서 나온

구슬, 아크릴

16x4.5x24cm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주요 작품인 <잔존하는 것들을 뭉쳐 만든 슬픔>, <무거운 언어들의 책 #1-19>, <긴 꼬리 책>은 작가가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연결성'의 사유가 응축된 결과물이다. 세 작품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언어와 물질, 감정과 기억, 시간과 존재의 관계망을 드러낸다.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남겨진 것과 사라진 것 사이의 긴장과 흐름을 시각화한다.

신작 <잔존하는 것들을 뭉쳐 만든 슬픔>은 기존 작업에서 '투명함'의 층위를 더한다. 작가는 시든 꽃, 종이 드로잉, 외할머니의 목걸이에서 나온 구슬 등 자신과 세계를 잇는 사적인 기억의 파편들을 아크릴과 레진으로 봉인해 책의 형태로 굳혀냈다. 물질들은 레진 속에 정지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시간의 잔향과 감정의 흐름이 남아 있다.

투명함은 단순한 물리적 속성을 넘어 과거와 현재, 부재와 존재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간의 구조를 의미한다. 우리는 투명한 표면을 통해 과거를 보는 동시에, 그 안에 스며 있는 현재의 자신을 비춰본다. 작가에게 이 작품은 누군가의 부재, 사라진 것들의 잔존,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애도와 치유의 제스처이다. 결국 남겨진 것들을 모아 만든 슬픔의 결이자, 잊히지 않으려는 기억의 고리이다.



무거운 언어들의 책 #1-19
The Book of Weighty Words
#1-19

2025

나무 블럭에 조각, 유채, 아크릴
20.5x5x30.5cm (each)

<무거운 언어들의 책 #1-19>은 문자 언어를 시각적 형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읽을 수 없는' 책을 구현한다. 페이지, 제본, 표지 등 책을 구성하는 구조적 요소를 분해함으로써 '책'이라는 형식과 '언어'라는 매체가 갖는 고유한 경계를 해체한다.

각각의 책은 더 이상 정보를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매체로 기능하지 않는다. 언어의 잔재와 물질적 흔적만이 파편적 형태로 존재할 뿐이다. 나무 표면은 마치 무거운 말이 스며들어 흔적을 남긴 듯 파이거나 깎여 있다. 이는 언어가 지닌 구조적 중압이 물질적 차원에서 가시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문자 언어의 의미 기능이 제거된 자리에서 비언어적 감각과 촉각적 반응, 그리고 새로운 의미 생성의 가능성을 엿보며 언어와 시각성의 관계를 다시 사유하는 지점을 제시한다.



긴 꼬리 책
The Long-Tailed Book

2023-2025

종이에 유채, 아크릴, 벨벳 리본,
투명 레진, 실크 천, 고리
45x25x3cm

<긴 꼬리 책>은 길이 약 7미터에 달하는 설치작이다. 여러 차례의 재바인딩(binding) 과정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책으로 만들어졌다. 페이지를 접고 펼치는 무작위적 과정을 통해 우연한 분절과 예기치 않은 연결이 발생한다. 이미지들은 교차하고 분기하며, 하나의 서사로 이어지던 장면들은 독립적 단위로 분열된다. 이 과정에서 책은 선형적인 서사 구조를 벗어나 감각과 기억의 흐름을 따라 유기적으로 확장된다.

<긴 꼬리 책>은 '읽히는 책'이 아니라 '흐르는 책'이다. 펼쳐진 페이지와 레진으로 봉인 된 장면의 길고 느슨한 리듬 속에서 관람자는 한 개인의 내면과 세계의 구조가 교차하고 순환하는 움직임을 체험한다.

세 작품을 따라가다 보면, 서로 다른 밀도의 연결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형태를 마주하게 된다. 단단한 결속에서 느슨한 묶임으로 이동하며, 연결은 물리적 상태에서 개념적 사유로 변모한다.

눈에 보이는 결합이 사라질수록 오히려 보이지 않는 연결은 더욱 깊어진다. 화면에 남은 것은 미세한 빛, 풀렸다가 다시 묶이는 리본, 흐르는 물, 날개의 편린처럼 덧없지만 선명한 흔적들이다. 그것은 작가의 내면에서 떠오른 잔류의 이미지이자, 존재가 지나간 자리에서 남겨진 투명한 시간의 흔적이다.

작가는 말한다. 우리는 하나로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사이'에 놓여 있는 존재라고. 그 '사이'에서 생성되는 연결의 감각이 이번 전시 《투명한 꼬리》의 본질이자 작가가 시각언어로 끊임없이 번역해온 세계의 모습이다.

4. 작가 소개

유리(b. 1994)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회화과를 졸업했다. 《투명한 고리》(2025, 학교재, 서울), 《없는 날》(2024, 페이지룸8, 서울), 《느슨히 꺼안고 단단히 풀기》(2023, 갤러리 인 HQ, 서울), 《Double Bind: 아티스트 북 프로젝트》(2023, 포켓테일즈, 서울), 《이렇듯 포옹은 문장이 되지 못하고》(2021, 별관, 서울) 등의 개인전을 가졌다. 단체전으로는 《OCTO-》(2025, 페이지룸8 & 지우현 갤러리, 서울), 《황금 화살》(2024, TINC, 서울), 《메신저의 신비한 결속》(2024,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창작센터, 대전), 《흰 작살을 머금은 바다》(2024,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서울), 《루시드 미스터리 / 다크 클래리티》(2023, 학교재, 서울), 《로컬 크리스마스 마켓》(2022, 디언타이틀드보이드, 서울) 등이 있다.

5. 작가 약력

유리

1994 서울 출생

2018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개인전

2025 투명한 고리, 학교재, 서울

2024 없는 날, 페이지룸8, 서울

2023 느슨히 꺼안고 단단히 풀기, 갤러리 인 HQ, 서울

더블 바인드: 아티스트북 프로젝트, 포켓테일즈, 서울

2021 이렇듯 포옹은 문장이 되지 못하고, 별관, 서울

단체전

2025 옥토 OCTO-, 페이지룸8, 서울

2024 황금 화살, TINC, 서울

메신저의 신비한 결속,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창작센터, 대전

흰 작살을 머금은 바다,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서울

2023 루시드 미스터리 / 다크 클래리티, 학교재, 서울

OCTO-, 페이지룸8, 서울

2022 로컬 크리스마스 마켓, 디언타이틀드보이드, 서울

불완전한 세계에서 완전한 경계로, 페이지룸8, 서울

흙, 흙, 호프, 갤러리 인 HQ, 서울

드로잉그로잉, 미학관, 서울

머디 포레스트, 갤러리인, 서울

A에서 시작되는 울림, KT&G 상상마당 춘천, 춘천

-
- 2021 제로베이스: 더 페인터스, 서울옥션 강남센터, 서울
구름 모양, 갤러리 아노브, 서울
다시 만날 때까지, 아티스트런 스페이스 쇼앤티, 서울
- 2020 10의 n승, 문화역서울284 TMO창작유통공간, 서울
- 2019 제로베이스: V.2, 서울옥션 강남센터, 서울
- 2018 콘슈머맛팝콘, 임시공간 세네네, 서울
열 두개의 서재, 돈의문박물관마을 서대문여관, 서울
- 2015 마중물, 김리아갤러리, 서울
S.O.S (사운드 오브 샤우트), 토이리퍼블릭, 서울
완전한 맨손, 삼원그린맨션, 서울